

광주여대 안산, 대통령기 양궁 '4관왕 명중'

김민서 등 활약 단체전 준우승
조선대 이진용 남자부 은메달
대학부 혼성전서 광주 1위

광주여대 안산이 제38회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 대회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안산은 23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여자 대학부 30m 경기에서 357점을 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같은 대학 김민서는 355점을 획득, 주혜빈(355점·창원대)과 공동 3위에 올랐다.

안산은 앞서 열린 50m 경기에서는 339점의 기록으로 박소민(339점·한체대)과 함께 장민희(340점·인천대)에 이어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전날 열린 60m에서 금메달을, 7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안산은 개인종합에서도 1379점으로 1위에 오르며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안산과 김민서의 활약을 앞세운 광주여대는 종합득점 453점으로 대구 계명대(4072점)에 이어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오후에 열린 남자 대학부 경기에서는 이진용(조선대)이 30m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진용은 김예찬(경희대), 김강현(안동대), 이한샘(서원대)과 함께 357점을 기록하며 남유빈(359점·배재대)에 이어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남녀 대학부 1위 싱글라운드 합산으로 순위를 가린 혼성전에서는 여자 대학부 1위 안산(1379점)과 남자 대학부 5위 이진용(1343점)이 팀을 이룬 광



23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38회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에서 여대부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한 광주여대 선수들. 왼쪽부터 최예진, 정시우, 이세연, 안산, 김민서, 박나운.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주가 1위를 차지했다.

안산은 광주체고 2학년 때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지난 21일 끝난 2020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위로 3년 연속 태극마크를 지켰다.

안산은 "코로나19로 목표인 올림픽 메달 꿈이 미

뤄졌지만, 선발전과 대통령기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거둬 기쁘다"며 "오는 9월 다시 시작하는 국가대표 선발전과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컵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은 광주여대 양궁부 감독은 "코로나19로 동계훈련을 못해 매일 1시간씩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선수들의 체력을 보강하고 개개인의 기술적인 단점을 보완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순연이나 취소나
올 10월 전국체전

7월 초에 판가름

지자체·방역당국 협의 후 결정

올해 전국체육대회 순연 또는 취소 여부가 7월 초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10월 8~14일 전국체전을 개최할 예정이던 경상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을 우려해 10일 전국체전 연기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는 25일 내년 전국체전 개최 도시인 울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나 대회 순연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국체전 개최 예정지가 2021년 울산, 2022년 전남, 2023년 경남, 2024년 부산으로 결정된 타라 경북이 전국체전을 1년 연기하려면 다음 대회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내년 개최지인 울산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

울산이 순연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북은 전국체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 시설비로 1천 300억원 가까이 투자한 상황이라 1년 후 개최를 희망한다.

이 지사와 송 시장의 회동 결과에 따라 전국체전 순연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다.

올해 소년체전(서울)과 생활체육대축전(전북)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도권에서 2차 유행, 비수도권에선 확산 초기 조짐을 보이는 등 코로나19 사태 위기감이 고조된 탓에 정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관계 기관과 논의를 이어가고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7월 초께 전국체전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남 사이클 빛나는 '금빛 질주'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
빛가람중 금2·나주시청 금1
강진군청 등 은메달 5개 획득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한국 사이클 공식 첫 대회에서 전남 사이클 선수단이 금빛 질주를 선보였다.

전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강원도 양양 벨로드로ם에서 열리고 있는 2020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서 전남 사이클 선수단이 금메달 3개를 비롯해 은메달 5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강진군청은 대회 첫날인 21일 남일부 단체추발 결승전에서 코레일에 아쉽게 추월패를 당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하지만 강진군청 에이스 신동인이 군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첫 대회에서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여고부에서는 김채연(전남체고 1년)이 독주 500m에서 37초327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첫 날 은메달 2개를 수확한 전남 사이클 선수단은 이틀째 경기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막내" 빛가람중(나운서, 신희원, 홍윤화)이 여중부 단체스프린트에서 1분16초120의 기록으로 대회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나주시청(조선영, 권소연, 정선희)이 여일반 단체스프린트에서 1분7초438의 기록으로 대구시청에 약 0.2초 차 앞서 1위를 차지했다.

나주시청 장선희 감독은 부임 이래 첫 대회에서 금메달을 일구내 눈길을 끌었다.

전남 사이클 선수단은 여세를 몰아 여중부 개인추발 1km에서 신희원(빛가람중 3년)과, 남일부



나주시청 사이클 선수들이 2020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서 대회에서 역주하고 있다.

<전남체육회 제공>

개인추발 4km에 출전한 황범연(22·강진군청)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고부 단체스프린트에 출전한 전남체고도 동메달을 획득하며 대회에 출전한 전종별에서 메달을 수확했다.

23일 오전에 열린 여중부 단체추발에서 빛가람중학교(나운서, 신지연, 신희원, 홍윤화)와 전남체중(김가은, 송유진, 최연경, 황선미)이 2분43초

148, 2분48초154의 기록으로 나란히 결승에 올랐다. 기권승으로 빛가람중학교가 금메달을, 전남체중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재무 전남체육 회장은 "우리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한 전종별에서 메달을 획득해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고교생 된 '육상 셋별' 양예빈
올 첫 대회는 '힘 빼고 가볍게'

일반부 대신 18세 이하 선수권만 출전

한국 육상 역사상 '가장 유명한 중학생 선수'였던 양예빈(16·용남고·사진)이 고교 진학 후 치르는 첫 대회는 '힘을 빼고' 뛰기로 했다.

부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훈련장이 폐쇄되면서 100%의 몸 상태를 만들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움츠렸던 한국 육상은 25일부터 28일까지,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올해 첫 대회를 치른다.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20세 이하, 18세 이하 선수권대회가 동시에 열린다.

고교 1학년이 된 양예빈은 18세 이하 대회 여자 400m와 200m에 출전한다. 18세 이하 여자 400m 예선은 25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대한육상연맹은 고교생부터 '일반부와 함께 뛰는' 전국선수권대회 출전을 허용한다. 그러나 양예빈은 일단 고교 입학 후 처음 치르는 대회는 18세 이하 선수권대회에서 소화하기로 했다.

사실 고교생 중 양예빈의 적수는 없다.

양예빈은 일반부 성인 선수와 뛰어도 경쟁력이 있다. 양예빈은 계룡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여자 중등부 400m에서 55초29를 기록했다. 1990년 6월 9일 김동숙이 작성한 55초60을 29년 만에 바꿔놓은 '한국 여자 중학생 신기록'이었다. 55초29는 2019년 한국 여자 400m 전체 2위이자, 역대 11위 기록이기도 하다.

지난해 일반부에서도 양예빈보다 빠른 기록을 낸 선수는 55초19의 신다혜뿐이다.

양예빈이 고교에 진학한 뒤, 육상 팬들은 일반부 선수와 경쟁하는 고교 1학년 셋별의 모습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예빈 등 용남고 선수들을 지도하는 유순호 충남육상연맹 전무이사는 "양예빈에게 고교 첫 경기부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선수와 상의해서 18세 이하 경기에 출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상, 코로나19 변수로 훈련량도 충분하지 않았다. 유순호 전무이사는 "필드 종목으로 시작한 양예빈이 중학교에서 트랙 종목으로 옮겨 활약하는 사이에 피로 골절이 생겼다. 올해 초에 두 달 정도 충분히 휴식하면서 재활했다"며 "최근 3~4주 훈련 속도를 높이긴 했는데 지금은 기록을 내기보다는 부상을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예빈은 한국 육상이 장기 계획을 세워, 키워야 할 유망주다. 양예빈은 '2020년 400m 54초대 진입'을 목표로 세웠지만, 지도자들은 지금은 속도를 조절해야 할 시기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올해 첫 전국당구대회

국토정중앙배 24일 개막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당구 전국종합대회인 '제8회 국토정중앙배 2020 전국당구대회'가 24일 강원도 양구군 청춘체육관에서 개막한다.

덧새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문선수부와 동호인부가 진행되며, 캐롬, 포켓, 스누커, 잉글리시빌리어드 총 4개 종목의 경기로 이뤄진다.

전문선수 360여명, 동호인 선수 950여명 등 총 13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한다.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양구군과 협력해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진행된다.

▲무관중 경기 진행 ▲대회 관계자 및 해당 경기자의 출입 금지 ▲출입자 이중 발열 체크,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경기 20분 전 입장 및 이전 경기자 전부 퇴장 후 입장 ▲경기장 수시 방역 실시 등 방역 대책을 다각화해 코로나19 발생을 방지할 예정이다.

대한당구연맹은 또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코로나19 관련 의심 환자 발생 시 즉각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살아있다
2관	아구소녀, 사라진 시간
3관	아이 캔 온리 이매진, 사라진 시간, 열혈형사 배트맨 비긴즈, 엔딩스 비기닝스
4관	결백
5관	#살아있다
6관	#살아있다
9관	결백
7관 씨네커를	결백,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위대한 쇼맨, 에어로너츠
8관 씨네커를	침입자, 8만: 최후의 결사단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 11시 음악산책
김선아의 유월의 소나타
2020. 6. 26.(금) AM 11: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포커스4
판소리 1인극 <방탄칠가방>
2020. 6. 26.(금) ~ 4.(토)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4SEASON
소리꾼 이자람 <노인과 바다>
2020. 7. 25.(토) ~ 26.(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